

韓國에 있어서의 原子力과 매스미디어

李 光 榮

〈韓國日報 科學擔當 編輯委員〉

한국에서 원자력이라고 하는 낯선 낱말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30년쯤 된다. 한국은 1955년 12월 13일 한·미원자력 쌍무협정을 맺고 다음 해인 '56년 3월 9일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의 연구 개발 이용을 위한 원자력과를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일반인들이 원자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62년 3월 18일 한국 최초의 연구용원자로(TRIGA MARK II : 250kW)가 완공되면서 부터다.

당시 한국언론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시대의 개막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원자력이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우리생활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주로 소개했다. 연구용원자로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 공급하게되자 방사선의 이용분야에 대한 계몽기사가 많이 실리게 되었다.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에 관한 내용이 매스미디어에 심심찮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 말부터다. 한국전력공사(당시 한국전력주식회사)가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입지를 慶南梁山郡長安面古里로 확정짓고 1969년 10월 1일부터 부지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는 1971년 3월 19일 기공식을 갖고 87개월에 걸친 대역사 끝에 '78년 7월 20일 준공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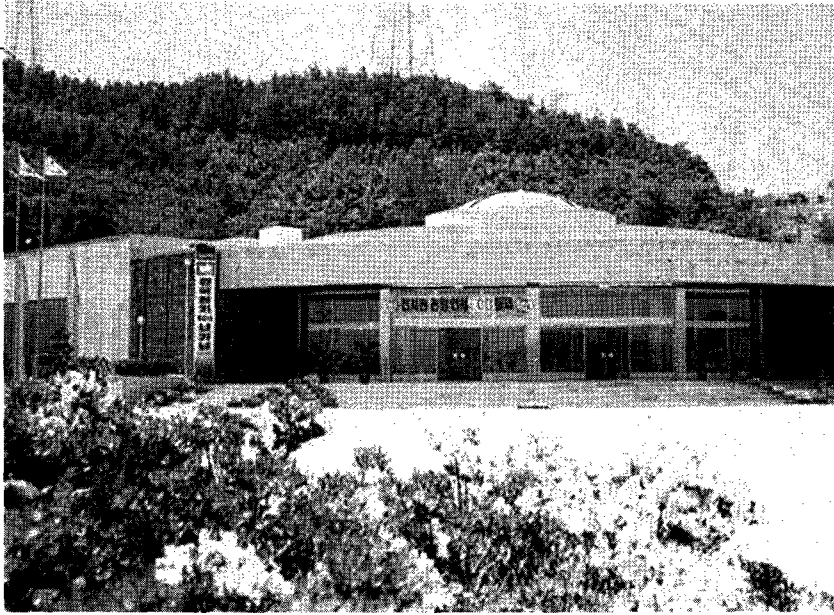
신문과 방송은 이를 계기로 원자력발전 개막

을 알리는 특집을 앞다투어 다루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 가난으로 부터의 탈피를 위해 국민과 국가가 한 마음으로 경제성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이고 있던 때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을 보는 당시 국민들의 관심은 원자력이 우리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인면에 주로 쏠려있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역발전을 위해 유치경쟁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여기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한국전력 공사는 말할것 없고 정부가 앞장서 원자력의 좋은 점만을 대대적으로 홍보(PR)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이해는 무척 긍정적이었다.

따라서 초기 한국의 원자력발전사업은 무척 순탄한 길을 걸었다. 원자력발전소건설과 운영에 대해 학계 일부에서 당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사회적인 분위기로해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사업이 일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로 접어들면서다. 강력한 통제와 성장위주정책을 펴온 박정희대통령시대가 '79년 막을내리며 원자력발전사업의 부정적인 면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영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과 고장은 물론 사고소식이 학계의 보고



와 국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상세히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1979년 3월 28일 미국의 TMI (Three Mile Island) 원자력발전소 사고이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1986년 4월 26일 일어난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큰 화재가나 폭발을 일으켰다는데서다.

체르노빌원전 사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자 많은 한국 사람들은 현재 한국에서 운전중이고 건설을 계획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자칫 잘못 폭발하지 않을 까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원자폭탄 같이 대폭발을 일으킬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이 갖고있는 경수로와 중수로는 소련의 체르노빌원자로와 같이 갑작새로 흑연을 쓰고 있지않아 견잡을수 없는 화제를 일으키거나 나아가서 로심이 폭발을 일으켜 주위에 강력한 방사성물질을 날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수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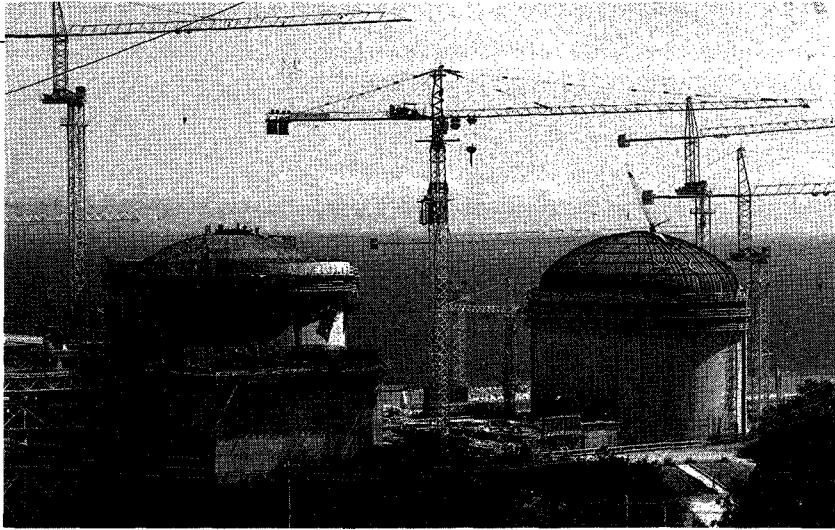
그러나 한국사람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가 큰 폭발을 일으킬수 있는데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또 '80년대로 들

어 오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해역의 수온상승과 주변지역의 방사능 오염상태가 널리 보도되면서 '84년 11월 25일엔 월성 1호기(중수로)에서 안전점검원의 실수로 냉각재인 중수가 24톤이나 대량 빠져나간 사고가 발생, 보도 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 했다. 더우기 '88년 12월엔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땅속에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폐기물이 대량 발견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건이 있은후 한국에서는 원전지역주민은 물론 공해추방운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원자력발전반대운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공해추방단체와 지역주민이 연합해서 원전 일대에서 나타나는 기형고기와 기형가축의 출현은 물론 무늬어 출산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 때문이란 주장을 하고 나와 이들의 주장이 매스미디어에 대대적으로 보도 됨으로써 원자력의 안전성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크게부각 됐다.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말까지는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됐던 시기이다. 공해추방운동연합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개 단체가 결성되어 원전지역주민의 방사능장해 문제에서 원전건설반대운동을 들고 일어났다.

원전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에 의한 장해가 심



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하자 정부는 관련학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지에 내려보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원전지역의 무뇌아 출산은 방사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반핵단체들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아직도 믿으려 들지 않고있다.

한국에서 반핵단체들은 제쳐두고라도 원전지역 주민들마저 당국의 조사결과를 믿지않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원자력발전 사업을 주도한 한국전력공사와 정부 등 관계 당사자들이 그동안 원자력의 부정적인 측면은 덮어둔채 좋은 측면만을 너무 강조 해왔다는 점이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사업은 좋은 측면만 강조된채 일반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원자력발전소의 부지선정과 설계, 건설, 운영에서 폐기물처리, 지역일대의 환경문제 등 일반국민들에게 알려야하고 협조를 구했어야 할 일들을 등한히 해왔다. 원자력관련당사자들의 설명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좀처럼 돌이키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이렇게해서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엔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있는 한국전력공사는 물론 정부당국도 원자력사업에 일반국민들의 이해(PA)를 돕기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펼쳐나가는가 하면 관련정보를 솔직히 공개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한국언론이 원자력발전사업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국언론이 원전의 안전성

과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비판적 입장에서지만 원자력발전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석유한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입장에서 석유대체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원자력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당위성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종사자들이 원자력발전사업을 보다 폭넓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서울에서 발간되는 중앙일간지는 물론이고 경제전문지와 TV사가 모두 과학보도를 전담하는 전문기자를 두고있다. 이들 과학기자들이 원자력사업의 밝고 어두운 면을 과학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어 합리적으로 분석,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해역과 인근 지역에서 기형물고기와 기형가축 출현, 더 나아가 기형아 출산 문제가 운동권 차원에서 보다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전문기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엔 원자력발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극렬한 운동단체는없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원자력발전사업은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10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국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다 추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은 이같은 국민의 욕구에 따라 앞으로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